

완주군, 장애인복지 190억 투자

생활안정지원 40억원 · 직업재활시설 11억원 · 시설 운영 80억원 등

완주군이 찾아가는 따뜻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 어느 해 보다 촘촘한 맞춤형 복지환경을 강화해 나간다.

완주군은 중앙부처의 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을 일찍이 확정함으로써, 8000여명의 장애인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40억원, 장애인단체의 지원·육성에 2억5000만원, 락스마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11억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14억원,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80억원,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에도 3억4000만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완주로컬 유업, 꿈엔가페, 희망발전소 1,2호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연계성을 높여나가기에 된다.

특히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 증진을 위한 장애인회합콜(택시) 운영(8대)에 2억원,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역량제고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장애인의 체육복지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연면적 2,500㎡ 규모의 장애인체육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가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업 14억원과 함께, 신규 복지시설인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역량강화 등 각종사업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인거주시설의 복지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12억원을 투입해 재가장애인과 이용장애인, 생활장애인에게 촘촘한 맞춤형 복지환경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2015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억7000만원을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활용한 만큼, 3년 연속으로 선정된 올해에도 국비 8000만원으로 방문상담·사례관리·민관협력·민간자원과 연계해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의 인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성일 군수는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완주군표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장애인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며 "앞으로 소외와 차별없는 따뜻한 장애인복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금산·영동군, 관광활성화 협업한다

3도 3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운영현황·'푸드투어' 추진 상황 공유

무주군이 충남 금산, 충북 영동군과 함께 하고 있는 3도 3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가 금산군청 다용도 대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박동철 금산군수,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세 지역 관광부서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3도 3군 관광협의회 운영현황과 3도 3군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드투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푸드투어' 사업은 농·식품부 창조지역사업 공모로 선정돼 추진 중인 것으로 3도 3군 관광협의회에서는 △ 무주군의 덕유산과 태권도원, 천마, 머루, 어죽, △영동군의 와인코리아와 국약체험촌, 포도와 블루베리, 올갱이국, △금산군의 인삼약초시장과 칠백의총, 인삼, 갯잎, 추어탕 등을 연계한 맛 여행상품과 푸드 스톨 체험상품, 푸드 투어 코스를 개발해 왔다.

3도 3군 관광협의회는 2007년 12월 중부 내륙권 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는 취지에서 발족했으며 그동안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 홍보물 제작(한국어, 일본어, 대만어 판 제작 완료/중국어, 영어판 제작 중)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3도 3군 축제 교류사업



무주군이 충남 금산, 충북 영동군과 함께 하고 있는 3도 3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가 금산군청 다용도 대회실에서 개최됐다.

추진, 관광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동역가이드 초청 팸투어 등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3도 3군 관광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올해는 1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 해외교류를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같이 보고,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3도 3군이라는 인식을 심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의 관광지원은 무주구천동 33경과 덕유산, 머루와인동굴, 태권도원, 적상산, 반디랜드, 그리고 토탈 관광 등이며, 충남 금산군은 인삼

과 인삼약초시장, 칠백의총, 개삼터공원, 대문산, 십이폭포, 충북 영동군은 송호관광지와 영국사, 와인코리아, 민주시민 국약체험촌, 빙벽 등이다.

황 군수는 "관광활성화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허문지 10년, 무주와 금산, 영동군의 보석 같은 자연 문화자원들이 충분한 기반이 돼서 모두가 부러워 하는 형태 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며 "2017 무주와 금산, 영동군도전수권대회(6.24~30.)가 3도 3군의 매력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가예산 추진전략 심층 토론회

76개 사업 2421억 확보키로

진안군은 균형 상황에서 유급주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예산 사업 추진 상황 보고와 대상사업 76개 국비 2,421억원 확보를 목표로 심층토론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진안군에 꼭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 등 대선공약사업을 발굴하고, 군정 주요시책과 연계할 2018년도 국가예산 반영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논리개발과 전략적 접근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각 실과소장은 연초부터 발 빠르게 실시한 도청과 해당부처별 사전설명 결과와 동향 파악 추진상황, 2018년도 100대 핵심사업에 선정된 진안군

신규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했다.

또한 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단계에서의 예산반영을 위한 전략적 추진 방법, 대선공약사업 및 정치권 공조사업 지정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55억5,000만원, △특화품목 첨단 원예시설단지 조성 지원 18억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30억원, △공유림(군유림) 밀원수 조립 17억원, △진안공원 산악초(나물)클러스터 단지 조성 50억원,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원 14억5,000원 등 8개 사업 193억원에 대해서 부처 단계에서 국가예산 요구액 전액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진안=유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저소득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무주군은 관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장치(이하 타이머폭)를 무료로 보급한다.

1,2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250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달 2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성일, "공직자 비리, 일벌백계"

"박성일 완주군수가 최근 불거진 일부 군청직원의 공공횡령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죄하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할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3월중 청원 월례조회와 간부회의 자리에서 "몇몇 공무원이 국민체육센터 수입을 횡령한 것에 격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무엇보다 완주군민에게 과오이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공공횡령과 직간접된 직원을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국가예산 확보 대응계획 수립

발굴보고회 개최... 111건 1087억 사업 전략 논의

장수군은 2018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열어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 설정과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영희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그간 발굴한 신규·계속 사업 111건 1,087억원('18년 국비)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발굴된 신규사업 80건(총 사업비 8,545억원)에 대해 부서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 62건(5,888억원)을 우선 확보 대상으로 정하고 분

야별 5대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대 중점사업으로는 임실~장수간 국도(13호선) 건설(1,624억원), 천천~장수 IC간 도로공사(400억원), 장수 천천에 '놀라운' 조성(98억원), 장수군 금강 생태하천 복원(100억원), 임업기계지원센터 조성(60억원)이다.

군은 특히 SOC 분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한 장수~장계간 국도 19호선 사업에 이어 내년 임실~장수간 국도 사업 확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규제개혁 과제발굴 토론회

진안군은 균형 상황에서 유급주 부군수 주재로 아이코리아 박미희 회장과 9명의 진안군 규제개혁위원과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소속 공직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안군의 규제개혁 성과 보고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역 활력 및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논의했다.

논의된 과제는 '걸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단단지 내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완화, ▲공정장립 시 기준공장 면적을 적용방법 개선, ▲소규모 통진주 설치 농지전용허가 절차 제외 등이 포함되었다. /진안=유태만 기자

완주군, 로컬푸드 안전성·내실화 총력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가공품 통합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완주군은 완주로컬푸드의 안정적 성장 및 내실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로컬푸드의 누적 매출액이 1492억원에 이르면서 2500여 농가에게 연 1200만원에 가까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등 외형 성장세를 구현하고 있다.

반면 로컬푸드 직매장 난립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올해를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다.

우선 군은 생산현장에서 출하 전 농산물을 수거 분석함으로써, 잔류농약 농산물의 로컬푸드 직매장 진입을 사

전에 차단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부 부적합 농산물 농업인에게 개인적으로 특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공분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가공품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동시에 가공품 대상자 선별부터 가공품 출하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될 완주로컬푸드 육성·지원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 명덕천 하천정비사업 확정

장수군은 장계면 명덕리에 위치한 명덕천이 '지방하천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명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7억원(국비 79억, 도비 31억, 군비 47억)이 17년부터 20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장계면 동명마을부터 장계면 합류점까지 약 4.7km구간에 걸쳐 제방 및 사면보강, 하천환경정비, 교량, 어도, 친수공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라북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